

○ 해외산업간호정보 ○

#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출처 :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번역 : 장은희(한국산업안전공단 구미지도원 보건지원부장)

본 내용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서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하여 연구중인 현안 과제들에 관한 내용을 번역한 내용임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근골격계질환이 남성근로자에서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높은 것이다. 이에 이러한 현상이 남녀 체격조건 차이에 의한 것인지 남녀간의 직업 분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1. 미국의 여성근로자 취업현황

- 137백만명의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는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4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 1999년의 경우 여성근로자의 75%에 해당하는 46백만명이 정규근로자로 25%인 16백 만명의 여성근로자가 시간제 근로자임.
- 1999년의 경우 3천7백만명의 여성근로자가 두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음.
- 1999년도의 경우 취업여성근로자의 40%는 기술, 영업, 관리 지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32%는 관리, 전문직전문가로 17%는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음.

또한 NIOSH에서는 다수의 여성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정보통신업, 보건의료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근로시간 중 정기적인 휴식이 근골격 계질환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 2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연구분야

### ■ 근골격계질환

염좌, 뱀, 수근관증후군, 건염,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여성근로자 업무상 질병의 절반 이상인

### ■ 직무스트레스

작업장에서 스트레스는 여성근로자는 물론 모든 근로자들에게서 증가되는 문제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용된 여성근로자 중 60%가 스트레스를 첫번째 문제로 응답하였다. 많은 작업조건들이 여성근로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 중 과중한 업무, 작업에 대한 낮은 권한, 역할모호 및 갈등, 동료근로자 및 상급자들과의 불편한 인간관계, 단순반복 작업 등이 더욱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성희롱, 직장 일과 가사 병행의 어려움도 스트레스를 가중시

키는 요인이다.

또한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우울, 격무로 인한 탈진도 연관되어 있어 NIOSH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예방대책을 연구 중이다.

**■ 생식기능 장애물질**

여성근로자의 75%가 가임여성이며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일하는 여성에게서 태어나게 되므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는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NIOSH는 여성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생식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내용들은 이러한 연구들에 의한 결과이다.

- VDT작업과 유산, 저체중아 출산, 조산은 관계 없는 것으로 보고됨
- 전리방사선에의 폭로, 서카디언 리듬의 파괴는 여성 항공승무원들의 생식건강위험을 증가시킴.
- 젯트연료 폭로가 여성공군인력의 생식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 중이다.

**■ 작업장 폭행**

- 타살 : 작업장의 첫번째 사망재해는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여성근로자의 사망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작업장 살인은 강도에 의한 것이 가장 많으며 주로 식료품점, 편의점, 식당, 주유소 등에서 발생한다.  
 작업장에서 발생된 여성희생자들의 25% 이상이 동료, 고객, 배우자, 혹은 친구와 같이 알고 있던 친지들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다.
- 습격 : 여성근로자들은 또한 사망까지의 가지 않으나 여러가지 형태의 습격, 폭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습격들의 70%가 보건의료에서 나머지 20%는 도소매업, 식당 식료품점 등에서 발생한다.

**■ 소수여성 취업분야**

여성근로자의 취업이 적은 분야에서 취업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제공된 작업복, 작업도구에서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개인보호구나 작업복은 대개 남성근로자의 체격조건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어 여성근로자의 체격조건에 맞지 않아 보호기능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직업성 암**

작업장에서의 유해물질에의 폭로는 암질환발생에 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되어 NIOSH는 여성암 발생과 유해물질에 관한 연구, 예를들면 여성근로자가 절반이상인 세탁업에서 주요 용제로 사용하는 PERC(perchloroethylene)와 자궁암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보건의료업**

미국의 4천3백만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92%가 여성이며 이들은 근골격계질환, 작업장 폭행, 유해물질에의 노출 외에도 라텍스알레지, 주사바늘찔림과 같은 업무상 위험요인에 당면하고 있다. NIOSH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새로운 방침을 정하였다.

- 주사바늘찔림 : 보건의료기관에서 한해동안 보통 6만~8만건의 주사바늘찔림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간호사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재해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줄 뿐 아니라 B형간염, C형간염, HIV와 같이 혈액으로 인한 질병에 감염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라텍스 알러지 : 보건의료 조사자들은 업무수행시 사용되는 라텍스장갑에 대한 알러지발생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라텍스에 자주 폭로되는 근로자의 8~12%는 라텍스에 민감하게 되어 피부발진, 코막힘, 천식, 심하게는 쇼크까지도 발생하게 된다.